<열왕기상하, 잠언, 전도서, 아가>

왕조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왕국
역사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 하
		역대상	역대하	
시가/예언	시편		시가서(지혜서)	예언서(선지서)

월 : 역대상 / 시편
화 : 열왕기상 (1~11)/ 잠언
수 : 잠언
목 : 잠언 / 아가
금 : 전도서
토 : 역대하 (1~9)

1. 열왕기

1)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멸망했는가?
-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언약의 성취
- 왕상 18 장 : 머뭇머뭇, 양다리 걸치다 (김태한 목사), 울타리 위에 앉아서 (유진 피터슨)
-> 신명기 17 장 : 솔로몬의 타락
-> 신명기 28 장 : 사망, 가뭄, 인육의 섭취, 패망과 포로생활

2) 왜 엘리야 & 엘리사?

솔로몬 왕국의 단독 역사와 몰락	왕상 1~11 장
여로보암과 북왕국의 분리	왕상 12~14 장
유다왕들 / 이스라엘 왕들	왕상 15~16 장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	왕상 16~ 왕하 12 장
유다왕들 / 이스라엘 왕들	왕하 13~16 장
북왕국의 멸망	왕하 17 장
유다왕국의 단독 역사와 멸망	왕하 18~25 장

=> 언약을 파기한 왕과 백성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릴 수 밖에 없음

*** 본격적으로 예언서 (선지서)로 넘어가기 전에!!! 시가서 (지혜서)가 필요합니다!!!**

2. 잠언

1) 잠언을 읽으면 정말 지혜로워지는가?
- 1~9 장까지의 좀 더 긴 잠언들이 나머지 부분 (대부분 짧은 2 행시) 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해석학적 틀의 역할
- 9:3 - 지혜 : 성중 높은 곳, upon the highest places of the city : 하나님의 지혜 - 하나님 자신
- 9:14 - 우매 : 성읍 높은 곳, on a seat in the high places of the city : 고대 근동의 신들 - 바알
=> 1 등을 만드는 지혜라면 NO, 넘어진 이를 일으켜세워 함께 가는 꼴찌를 만드는 지혜라면 YES!

2) 해석연습
- 19:4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3. 전도서

1) 욥기와 같은 관점으로 읽어야
- 욥의 친구들의 말들 : 교과서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후반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함
- 전도서의 말들 :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함
12:13-14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2) 해석연습
2:16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지 오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4. 아가

1) 남녀간의 사랑을 찬양
2) 인간 사랑이 타락 이전의 축복의 상태로 회복된 것
3)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열왕기상(1 Kings, 列王記上) 한눈에 보기

개 요 불복종으로 인한 단절

I. 솔로몬의 40년 통치 (1장~11장)

- 솔로몬의 즉위와 초기통치 (1장~4장)
- 성전과 왕궁의 건축 (5장~8장)
- 전성기 (9장~10장)
- 쇠퇴기 (11장)

II. 두 왕국의 첫 80년 (12장~22장)

- 르호보암의 즉위 (12장)
- 유다 왕국의 왕들 (13장~22장)
-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13장~22장)
-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 사역 (17장~22장)

열왕기하(2 Kings, 列王記下) 한눈에 보기

개 요 흩어짐 : 고의적 죄의 비극적 결과

I. 북 왕국(이스라엘)의 연대기 (1장~10장)

- 엘리사의 예언 활동이 두드러짐
- 예후 왕의 죽음으로 활동이 끝남

II. 남북 왕국의 교차 연대기 (11장~17장)

- 양 왕국의 연보가 교차로 진행되다가 17장에서 북 왕국이 앗시리아에 멸망함 (BC 722)
- 이 시기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북 이스라엘에서 활약

III. 남 왕국(유다)의 연보 계속 (18장~25장)

-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됨으로 끝남 (BC 587)
- 이 시기에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그리고 오바댜가 유다에서 활약

 # 열왕기서 (구약 교회사)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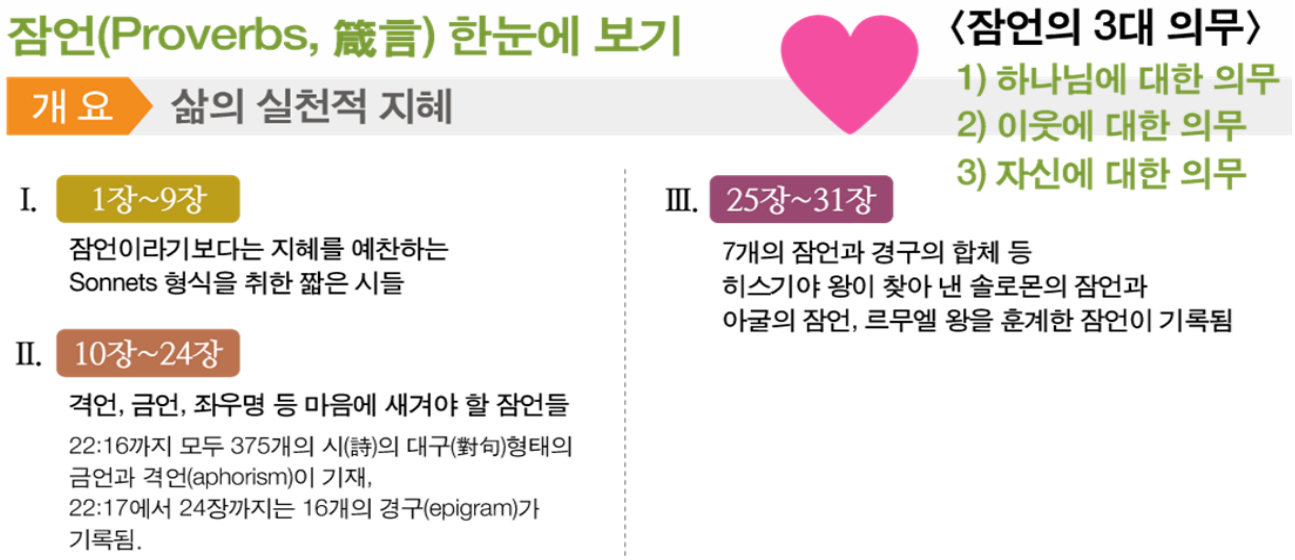
솔로몬의 통치기간에 관한 기사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면을 할애한다. 왜냐하면 성전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주제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솔로몬은 통치초기에 내적으로는 온전한 지혜와 외적으로는 성전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량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진다.

열왕기서의 중심부로 갈수록 그 핵심이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면서 인간의 육적인 왕국을 세우려는 타락한 왕들에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를 복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분투가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남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중심부인 열왕기상 16 장부터 열왕기하 14 장까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열왕기서의 교훈은 어느 왕이 어떤 행적을 행했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왕들에게 주어진 참된 본분(신명기 17 장)을 거역하는 왕들의 모습이 부각되고 이에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엘리야와 엘리사)의 분투가 중요한 메시지의 원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열왕기서에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가? 아니다. 다윗왕조의 희망을 보면서 열왕기서는 막을 내린다. 여호야긴이 죄수와 포로의 몸으로 끌려갔으나 죄수의 신분으로 죽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손님 대접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윗왕조의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막을 내리는 것이다.

다윗 왕조인 남유다가 인간적으로 벌 받을 짓을 했고 또한 실제로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은 인간적 왕조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오직 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준다.



 # 잠언 읽기: 각기 다른 시대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쓴 수많은 잠언들의 모음집

- 신변 잡기적인 일상생활에 침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
-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방침들을 제공함.

 # 잠언의 핵심구절들: 잠언에서는 "여호와 경외"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1:7).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9:10).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15:33).
-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31:30).

- 그러므로, 잠언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 백성을 위한 것이며 지식의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음을 의미한다. 지식의 옳고 그름의 척도가 곧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 잠언에 나오는 다양한 지혜들

1. 하나님을 경외함 - 1:7, 3:5-6, 16:3, 16:9, 16:20.
2. 마음 지킴의 중요성 - 3:3, 4:23.
3. 말의 중요성 - 10:19, 17:9, 18:21. / 말과 관련된 지혜 - 15:23, 25:15.
4. 성실과 정직한 삶의 지혜 - 10:4, 19:15, 10:9, 19:16.
5. 겸손과 자기 절제의 지혜 - 22:4, 29:23.
6. 대인관계의 슬기 - 20:6, 22:24, 22:25, 24:28. /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 - 28:27, 21:13.
7. 재물 사용의 중요성 - 3:27, 19:17, 21:6, 23:5. / 재물 지킴의 중요성 - 13:11, 27:24.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잠언의 주제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백성	백성됨을 아는 것 (Knowing Me)
땅	공동체성/연함됨을 아는 것 (Knowing Community)

 # 전도서 읽기

- '헛되다'(헤벨: 숨, 김, 수증기)는 말이 38번 나온다. '해 아래'라는 표현도 29번 나온다. 이과 더불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0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령한다.

- 삶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 아래'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세상이 의미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 있는 '해 아래'의 삶을 넘어 존재하는 죽음 이후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허무'로 끝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내세에서 발생할 일, 즉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이후의 부활이야말로 '해 아래'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하기 때문이다.
-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절망감과 허무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진 바 된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증거한다. 일상적인 삶과 예배와 봉사 속에서도 성도는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며, 그 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 세상의 질서와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12:13-14).

아가(Song of songs, 雅歌) 한눈에 보기

개 요 사랑 이야기

I. 사랑이 싹틈 (1:1~5:1)

- 1:1~3:5 사랑에 빠짐
- 3:6~5:1 사랑 안에서 연합됨

II. 사랑이 커짐 (5:2~8:14)

- 5:2~7:10 사랑의 갈등
- 7:11~8:14 사랑이 자라남

 # 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의 노래, 줄거리가 있는 한 편의 시) 읽기

- 19세기 이전: 풍유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그리스도인)로 해석.
  - ■ 유대 전통: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에 주목하여 신랑: 하나님, 신부: 이스라엘.
  - ■ 초대 교회: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 개인과의 관계에 주목.
- 19세기 이후: 문자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으로도 독해.

 #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아가서의 메시지

- 개인적 차원: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 아가서에서 성으로 대변되는 육적인 문제 역시 성도가 붙들고 씨름하고 바로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임을 드러낸다.

- 교회적 차원: 하나님의 신부 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이 땅을 순수하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는 유월절 집회에서 낭송!